

# 1학기 조직사업 평가서

## 1. 목표

- 무너진 여학생회 단위를 복구할 수 있는 발판을 세운다.

: 성평등 위원회 체계로 세워진 곳은 문·이과대와 관광대이다. 다른 곳(정경대, 법대)은 여성학 소모임을 책임지는 주체를 세웠다. 1학기를 돌아보며 체계와 공간, 그리고 사람은 세워졌지만 성평등 위원회와 여성학 소모임 두리로 얼마나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 새내기들이 묶여 있는가. 또한 전반 활동과 소모임의 정형이 안착화 되어있는가를 살펴보면 아직도 불안정한 부분들이 많다. 총여 역시도 제대로 된 지도와 하방을 끊임없이 공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2학기 사업의 핵심은 이 부분에 주력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성평등 위원회 체계는 이후 여학생회에 대한 고민을 소모임의 경우는 모임의 정형을 세우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내년 그 공간을 책임질 주체 발굴과 그 주체를 튼튼히 세워내는 것이 핵심이다.

- 운동 사회 내에서의 가부장적인 모습들을 고쳐내고, 여성운동 내에서 정리되지 못했던 입장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한층 더 여학생 운동의 역할을 높여내도록 한다.

: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 내에서 '여성 문제'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관점을 이끌어내기 위해 여성학 학교도 준비하고 사안별 문제제기도 계속되었었다. 이것은 이후 개개의 또 다른 사건들 속에서 활동가들의 입장을 보면서 의식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것이 이번 1학기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여성 운동 내에서 정리되지 못했던 입장들을 정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또한 총여학생회가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한 것도 있었다.

위 두 가지 문제가 잘 풀리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주력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적은 수의 사람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다 보니 제 역할을 다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많았다.

이 부분을 고려하여 남은 기간 사업의 성격과 실무적 양을 고려하여 잘 배분하고 배치해야 하겠다. 또한 이후 내년 전망과 관련하여 조직사업을 하는 사람의 활동을 총여학생회에서 함께 담보해줘야 한다.

## 2. 학습과 활동

### 1) 방중 활동(겨울)

- 여성학 학습→단위 주체들과 꾸준히 정기모임을 가지며 잘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의대 주체가 이 이후 사업적, 조직적 연계를 갖거나 만남이 꾸준히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다. 또한 단위 주체들과 1학기 사업 논의가 늦어지거나 아예 이루어지지 못해 1학기 사업이 조직적으로 결정되고, 운영되지 못했다. 2학기 준비는 21일 소모임 워크샵과 8월 마지막주 단위 주체회의를 통하여 사업 결정을 할 것이다.

- 역사학습

우리역사이야기 1,2,3→제 때 책을 읽지 못했고,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직접적으로 역사학교에 참가하지는 못했다. (일정이 안 맞는 부분도 있었다.) 1강과 2강만 진행됨.

경제사→ 주체가 프린트물을 아예 주지 않음.

### 2) 학기 중 학습

- 성폭력을 다시 쓴다.→ 총여학생회는 이 책을 다 읽었으나 이후 5월부터 사업이 많아지면서 흐름을 놓쳤다. 2학기에 3장부터 다시 시작하자. 단위와 소모임에서는 진행이 되지 않았다.

- '8복한 페미니즘→ 대부분 이 책을 다 읽었으나 역시 진행되지 않음.

민족과 페미니즘→ 책 마저 다 읽지 않음.

⇒ 전반적으로 여성학 학습의 경우 집단적이든 개별적으로든 이루어졌으나 함께 이 부분을 공유하거나 토론하는 모습은 아직도 정형화·안착화 되지 않았다. 역사학습 등은 여전히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의식적인 노력과 요구가 없으면 이후에도 진행되기 어렵다. 또한 학습 전반 문제점은 약속한 시간이나 노력이 완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많은 양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2학기 선거 기간을 통해 정형화·안착화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 3. 활동

: 대표자의 단위 하방이나 학우 만남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유는 구체적인 계획과 이것을 관리해주고 함께 평가해줄 전담 주체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대표자에 대한 올바른 지도가 없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역시도 내려먹기 식의 사업을 단위(소모임 주체, 성평등 위원회 사람들)에 하고 있고, 또 단위 학생회에 바라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총여학생회만의 조직화, 의식화 과정이 부재했던 점도 무시할 수 없다.

2학기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할 때 단위 하방과 학우 만남 과정까지도 준비 과정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선거 준비 시 이 부분에 대한 공약 생산과 선거운동 방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내년 사람 배치와 집행부 인선 과정에서 이 부분을 전담할 사람에 대한 고민도 함께 되어야 한다.

## 4. 단위에 대한 평가(→이 부분은 같이 합니다.)

- 1) 정경대
- 2) 관광대
- 3) 문·이과대
- 4) 간호대